

특집 3

사도행전 2:42의 ‘떡을 뜯’

(τῇ κλάσει τοῦ ἄρτου)이 주는 교훈*

Lessons from ‘breaking of bread’

(τῇ κλάσει τοῦ ἄρτου) in Acts 2:42

주기철

고신대(신학과 교수)

목차

1. 들어가며 | 67
2. 사도행전 2:42의 ‘떡을 뜯’의 의미 | 69
3. 누가복음 22:19의 예수님의 명령:
“...나를 기념하라!” | 76
4. 고린도전서 11:17-34: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 80
5. 나가면서(요약과 적용) | 86

* 본 글은 고신총회의 성경연구 4호에 필자가 게재한 ‘사도행전의 단제’ 중에서 간단히
다루었던 주제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룬 것이다.

요약

사도행전 2:42의 '떡을 땜'(τῇ κλάσει τοῦ ἄρτου)이 주는 교훈

현재 코로나 19(Covid-19)은 전 세계의 사회와 경제에 큰 도전을 주고 있다. 특히 교회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온라인 성찬과 관련된 문제도 있다. 본 글은 온라인 성찬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한 글은 아니다. 단지 사도행전 2:42의 '떡을 땜'(τῇ κλάσει τοῦ ἄρτου)의 의미를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주의 만찬의 의미,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를 시행하면서 주의 만찬을 남용함으로 생겼던 문제를 차례로 살피려고 한다. 이를 통해서 성찬과 관련된 초대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명한 것(눅 22:19)은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마다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과 그의 삶을 기념하라는 것임을 말하고자 한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명령을 따라 함께 식사를 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했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한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주의 만찬을 남용한 것 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주의 만찬이 성도들과의 식사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한다.

*Lessons from 'breaking of
bread' ($\tauῇ κλάσει τοῦ ἄρτου$) in
Acts 2:42*

주요어

코로나 19, 온라인 성찬, 떡을 뗈, 주의 만찬의 의미, 주의 만찬 남용

Abstract

*Lessons from 'breaking of bread'
($\tauῇ κλάσει τοῦ ἄρτου$) in Acts 2:42*

Prof. Dr. Ki-chul Joo

Currently, Covid-19 poses a major challenge to society and the economy around the world. The church, in particular, is also challenged in many unexpected ways, including the matter of doing online communion. This article is not intended to provide answers to the aforementioned issue. Instead, I will discuss the meaning of $\tauῇ κλάσει τοῦ ἄρτου$ in Acts 2:42, what Jesus commanded to his disciples concerning the Lord's Supper, and problems caused by some of the early church members as they abused the Lord's Supper. Through this, I will examine the situation of the early church concerning the Lord's Supper and point out that what Jesus commanded his disciples (Luke 22:19) is to remember him and his life by sharing bread and wine with the saints whenever they shared a meal. I will also point out that the early church members, by following Jesus' command, remembered him every time they ate together. But due to various circumstances, other than that of the abusing of the Lord's Supper

by some early church members, the Lord's Supper has begun to be separated from meals with saints. This examination will give us some useful lessons.

Keywords

Covid-19, online communion, taking of bread, the meaning of the Lord's Supper, abuse of the Lord's Supper

1. 들어가며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 19(Covid-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예외 아니게 교회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예배 설교학 교수인 최진봉은 코로나 19가 한국교회에 가지고 온 도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진단한다.¹⁾ 그 중에서 특별히 온라인 성찬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그는 개신교회에서 온라인 성찬이 등장한 것을 이례적인 상황으로 평가하면서 온라인 성찬이 원래의 성찬의 정신과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비대면 예배 상황에서 온라인 성찬 시행은 성찬에 대한 몫이 이해와 성찬감성주의, 또는 성찬절대주의가 낳는 현상으로서, 교회는 이에 대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찬은 마치 개인이 혼밥을 먹듯이 분리된 빵 한 조각을 신자 흘로 먹는 일이 아닙니다. 주일 전, 자신에게 배달된 빵과 잔을 먹고 마시면 되는 것이 성찬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쪼개지지 않은 한 덩어리의 빵을 한 몸으로 모인 신자 공동체가 한 자리에서 ‘함께 먹는’ 공동체의 식사 사건입니다. 그것은 ‘성찬, 감사, 기도’에서부터 ‘성찬 후 기도’에 이르는 과정으로, 신자들은 그 과정에서 한 덩어리의 빵이 쪼개지고 한 병의 음료가 나누어지는 현장에 함께 있고, 그것을 목격하면서, 그것을 한자리에서 함께 먹음으

1) 최진봉, “코로나 19 이후의 교회,”『좋은나무』2020년 5월 20일. <https://cemk.org/16877/> 2020년 7월 14일 접속. 최진봉은 코로나 19가 교회에 몰고 온 도전과 관련하여, 온라인 예배로 인한 주일성수 문제, 성도들의 현금에 대한 인식 변화, 건물로서의 교회에 대한 인식 변화, 교회학교나 성경공부의 형태 변화 등의 문제를 지적한다.

로써 역사적 공동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자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의 떡과 잔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교회는 성찬을 유보, 또는 중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공동체가 분리된 방식으로 무리하게 성찬을 강행하는 것은 성찬의 정신과 의미를 왜곡 또는 변색시킬 수 있습니다. 2천 년 동안 교회는 성서의 가르침대로 주님의 빵과 잔의 의미가 손상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분별하여 먹고 마셨습니다.²⁾

시대는 바뀌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께서 시행하라고 가르치셨던 성찬(주의 만찬)의 의미와 정신을 왜곡하고 변형시키려는 도전이 있었을 것이다. 본 글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떡을 뗴’(breaking of bread)이라는 의미를 밝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주의 만찬의 의미,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를 시행하면서 주의 만찬을 남용함으로 생겼던 문제를 차례로 살피려고 한다. 본 글을 통해서 온라인 성찬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성찬과 관련된 초대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명하셨던 것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식사 중에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과 그의 삶을 기념하라는 것,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매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명을 따라 예수님을 기억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한다. 그러나 초대교회, 특히 고린도교회에서 나타난 주의 만찬을 남용한 문제 외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주의 만찬이 성도들과의 식사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밀하면서 교훈을 얻고자 한다.³⁾

2) 최진봉, “코로나 19 이후의 교회,” <https://cemk.org/16877/>.

3) 본 글은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므로 역사 신학적 관점에서의 성찬의 변천과정이나 교의학적 관점에서의 성찬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2. 사도행전 2:42의 ‘떡을 뗴’의 의미

사도행전에 ‘떡을 뗴다’는 표현이 5회 나타난다(2:42, 46; 20:7, 11; 27:35). 2:42에서는 ‘떼’ 혹은 ‘떼는 것’을 의미하는 명사(κλάσις)를 ‘떡’(ἄρτος)과 함께 사용하여 ‘떡을 뗴’(τῇ κλάσει τοῦ ἄρτο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 외의 나머지 경우는 모두 ‘떼다’(κλάω)는 동사를 사용하였다. 특별히 2:42의 ‘떡을 뗴’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breaking of bread’(ESV; NIV; KJV; NET; NRSV 외 여러 성경)라고 번역한다. 이와 같은 번역은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지만, ‘떡을 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몇몇 영어 성경은 다르게 번역한다. 즉, Aramaic Bible in Plain English은 “breaking of the Eucharist”, Weymouth New Testament은 “their attendance at the Communion, that is, the Breaking of the Bread”, Good News Translation은 “sharing in the fellowship meals”, 그리고 New Living Translation은 “sharing in meals(including the Lord’s Supper)”와 같이 번역한다. 이와 같은 번역을 볼 때, ‘breaking of bread’는 대략 세 가지로 이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breaking of bread를 성찬(Eucharist, Communion)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거나, 둘째,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일반적 공동식사(common meal)로 보거나, 셋째, 주의 만찬(Lord’s Supper)을 포함한 공동식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단순히 ‘떡을 뗴’(τῇ κλάσει τοῦ ἄρτου)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비록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명확했겠지만), 현대의 학자들 간에 이 표현의 의미와 관련해서 논의가 많다.

먼저 퍽츠머(J. A. Fitzmyer) 외 몇 학자들은 τῇ κλάσει τοῦ ἄρτου가 주의 만찬을 가리킨다고 본다. 그는 아마도 떼어진 빵(broken bread)이 항상 나누어졌다고(distribution)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일반 식사에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매 경우 실제로 필요한지 의문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서 2:46에서 ‘떡을 떼다’는 표현과 함께 ‘음식을 먹고’(μετελάμβανον τροφῆς)라는 표현이 더해진 것을 지적하면서, 양분섭취를 위한 일반적인 식사를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2:42의 τῇ κλάσει τοῦ ἄρτου가 고린도전서 10:16에서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예함이 아니냐”고 말한 것의 ‘우리가 떼는 떡’(Τὸν ἄρτον ὁν κλῶμεν)과 같은,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에 대한 정식언급(formal reference)이라고 주장한다.⁴⁾ 핏츠머는 ‘떡을 뺀’이라는 표현 자체에 어떤 의미가 함의된 것으로 보는 듯하다. 그러나 떡을 떼는 것이 단순히 음식을 먹을 때 떡을 나눈다는 의미로 본다면, 이와 같은 일은 특정한 때만이 아니라 매 식사 때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또한 2:46에서 ‘음식을 먹고’(μετελάμβανον τροφῆς)라는 표현이 첨가된 것 때문에 2:42의 것을 주의 만찬으로 보지만, 과연 ‘음식을 먹다’라는 표현이 추가된 것이 2:42와 2:46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떡을 뗀 후에 드셨기 때문이다(눅 22:14-22).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42과 20:7을 제외하고 ‘떡을 뺀’ 혹은 ‘떡을 떼다’는 표현이 사용된 모든 구절에서, 비록 다른 단어이기는 하지만 ‘먹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다.⁵⁾ 만약 그렇다면, 사도행전 2:42에서 ‘음식을 먹다’는 표현이 생략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2의 ‘떡을 뺀’과 고린도전서 10:16의 ‘우리가 떼는 떡’(τὸν ἄρτον ὁν κλῶμεν)이 같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후자의 것이 주의 만찬만을 지칭하는지 알 수 없고, 만약에 그것이 주의 만찬을 지칭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른 시기의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2:42의 것이 고린도전서 10:16의 것과 같다고

4) Joseph A. Fitzmyer, *The Acts of the Apostles* (New York: Doubleday, 1998), 271,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복음 전승의 3단계)까지 τῇ κλάσει τοῦ ἄρτου가 추상적인 표현이 되었고, 누가가 그 전통의 초기 단계의 의미로 되읽었을 것으로 본다. 참고, F. F. Bruce, *The Book of the Act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88), 73.

5) 참고, 행 2:46-μεταλαμβάνω; 20:11-γεύω; 27:35-ἔσθιω.

도 볼 수 없다.⁶⁾

네일(William Neil)은 바울이 성찬의 취지로 함께 식사하는 것이 반복된 것을 마치 자신의 회심 이전에 이미 관습이 된 것처럼 기록한다고 주장한다 (고전 11:23).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2:42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그와 같은 성찬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⁷⁾ 네일의 주장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1:23(“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하에서 묘사된 떡을 떼는 행위가 공동 식사와는 구분된 예식으로서의 ‘주의 만찬’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1:23이하의 기록이 예식으로서의 주의 만찬과 공동식사를 구분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는 듯하다. 네일이 주장한 바와 같이 떡을 떼며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그것이 교회에서 예식으로 정착되기 이전부터 관습처럼 행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2:19(“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에 기록한 바와 같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1장의 기록으로 사도행전 2:42의 ‘떡을 뺀’이 무엇인지 판가름 할 수는 없다.

6) 비록 누가복음이 고린도전서보다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누가복음 1:1-3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사도행전 2:42에서 누가가 기록한 사건은 바울의 기록보다 더 이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7) William Neil, *The Acts of the Apostles* (NCBC, Grand Rapids: Eerdmans, 1981), 81,은 이후의 사도행전에서는 ‘떡을 뺀’이 한 주의 첫 날인 주의 날(부활의 날)에 시행되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긴밀하게 연결된 공동체의 경우 하루의 주된 식사(main meal)때마다 행한 매일의 기념행사와 같은 것이었다고 말한다.

윌리암스(D. J. Williams)는 ‘떡을 땜’이라는 표현 자체는 일반적인 식사를 가리키는 것 이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떡을 땜($\tauῇ κλάσει τοῦ ἄρτου$)에 정관사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특정한 식사를 지칭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주의 만찬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⁸⁾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떡을 떼다’는 표현이 나타나는 다른 구절들을 볼 때, 2:42에서 정관사가 사용된 것을 근거로 떡을 떼는 것이 주의 만찬을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는 듯하다. 왜냐하면 ‘떡을 떼다’는 표현이 사용된 사도행전 20:11에서는 정관사를 사용하지만($κλάσας τὸν ἄρτον$) 또 다른 구절인 2:46($κλῶντες...$ $\άρτον$)과 20:7($κλάσαι ἄρτον$)에서는 정관사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레미아스(Joachim Jeremias)는 초대교회의 이른 시기부터 가르침, 기도, 공동식사와 성찬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고 보고, 사도행전 2:42에 열거된 네 가지(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을 땐, 기도)는 초대교회의 예배순서라고 주장한다. 그는 2:42에서 분사($προσκαρτεροῦντες$)로 사용된 동사 $προσκαρτερέω$ 가 사도행전에서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지적하면서(예. 2:46), 2:42에서 사용된 네 개의 문구는 짹을 이루어 분사인 $προσκαρτεροῦντες$ 에게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즉,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을 땐, 기도가 초대교회 예배에서 행해졌던 헌신의 모습이라는 것이다.⁹⁾ 그리고 ‘교제’로 번역된 $κοινωνία$ 는 ‘아가페’로 불리는 공동식사를 지칭하고 이어지는 ‘떡을 땐’($\tauῇ κλάσει τοῦ ἄρτου$)은 성찬(Eucharist)으로 본다.¹⁰⁾ 예레미아스의 주장에 대해서 한헨(Ernst Haenchen)은 조목조목 반박을 한다.

8) David John Williams, *Acts*, NIBC (Peabody, Mass.: Hendrickson Publishers, 1990), 60.

9) Joachim Jeremias, *The Eucharistic Words of Jesus* (London: SCM Press, 1966), 119-20,는 2:42에서 ‘힘쓰니라’로 번역된 동사($προσκαρτερέω$)의 명사형($προσκαρτέρους$)이 AD 1세기에 흑해에서 발견된 한 그리스 도시(Panticapaeum)로부터의 해방 비문($manumission inscription$)에서 정기적으로 회당에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단어가 사도행전 2:42, 46에서 사용된 것은 정기적인 예배 참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10) 보다 자세한 내용은 Jeremias, *The Eucharistic Words of Jesus*, 114-22를 보라.

첫째, 초대교회의 예배에서 단순히 기도가 결론을 구성하지 않고, 3:1에 의하면 유대인 청중들과 기독교인들이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둘째, 사도행전은 전체 기독교인들의 삶을 묘사하므로 2:42에서 *kai*(그리고)로 연결된 행위들은 각기 떨어진 독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1)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식으로서의 식사에만 한정되지 않고 성전에서도 행해졌다.¹¹⁾ (2) 2:42의 코이노니아($\τῇ κοινωνίᾳ$)는 단순히 예배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돈과 모든 종류의 현금과 구제 등을 포함한다. (3) 떡과 포도주로 구성된 종교적 의식으로서의 식사의 간결성을 생각해볼 때, 그 식사의 시작을 알리는 행위는 전체 식사를 가리킨다.¹²⁾ 이와 같이 주장하면서 한핸은 ‘떡을 땐’을 기독교의 공동식사의 이름으로 본다. 이와 마찬가지로 라킨(William J. Larkin)은 사도들의 교제와 떡을 땐은 공동식사에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소유의 나눔이고 삶의 나눔으로 본다.¹³⁾ 반즈(Albert Barnes) 역시 사도행전 2:44, 46의 표현들이 성도들의 일상을 나타내는 표현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떡을 땐’ 역시 일상적인 식사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본다.¹⁴⁾ 그와 같이 떡을 떼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사도행전 2:42에서 언급한 ‘떡을 땐’이 단지 ‘일상적인 식사’만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어떤 이들은 $\tauῇ κλάσει τοῦ ἄρτου$ 를 예식으로서의 주의 만찬으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하는 공동식사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묘사하는 초대교

11) 참고. 사도행전 4:48; 5:21, 33.

12) Ernst Haenchen, *The Acts of the Apostles: A Commentary* (trans. Bernard Noble and Gerald Shinn, Oxford: Basil Blackwell, 1971[1965]), 190-91.

13) William J. Larkin Jr., *Acts*, IVPNTC 5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5), 61.

14) Albert Barnes, et. al., *Acts, Notes on the New Testament* (18th prin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0[1949]), 57,는 떡을 떼는 행위는 보편적으로 축복을 비는 기도 이후에 주인이나 집의 가장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었다고 바르게 말한다.

회의 식사와 관련해서 단순히 떡을 떼는 것과 성례적 종교 행위로서의 떡을 떼는 것 사이에 구분이 있었을지는 의문이다.¹⁵⁾ 그리고 ‘떡을 뺀’이라는 표현이 식사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의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도 어색하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42에서 성도들이 힘쓴(현신한) 네 가지/세 가지¹⁶⁾ 행위 중에 ‘떡을 뺀’이 있는데, 이를 식사 전체로 보지 않고 식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본다면 그들의 현신이 단지 식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에 힘썼다고 볼 수 있다. 확실히 콘젤만(Hans Conzelmann)은 사도행전 2:42에서 바울 이전에 ‘주의 만찬’의 또 다른 형태가 이미 존재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떡을 뺀’을 식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으로 보지 않고 식사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¹⁷⁾ 아마도 초대교회에서는 식사 중에 주의 만찬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크다.¹⁸⁾

15) William H. Willimon, *Act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Atlanta: John Knox Press, 1988), 41,는 누가가 기록한 베드로를 리더로 하는 교회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예식으로서의 주의 만찬과 공동식사를 나누는 그 구분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바르게 지적한다.

16) 어떤 이는 사도행전 2:42에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사이와 ‘떡을 뺀’과 ‘기도’ 사이에는 접속사 ‘그리고’(καὶ)가 있지만 ‘교제’(τῇ κοινωνίᾳ)와 ‘떡을 뺀’(τῇ κλάσει τοῦ ἄρτου) 사이에는 접속사 ‘그리고’(καὶ)가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교제’와 ‘떡을 뺀’을 동격으로 본다. 즉, 떡을 떼는 것이 교제라는 것이다. 참고, C. K. Barrett, *Acts,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Vol. 1* (Edinburgh: T&T Clark, 1994), 164. cf. John B. Polhill, *Acts: The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1992), 118,은 ‘떡을 뺀’과 ‘기도’ 모두를 ‘교제’와 동격으로 본다.

17) Hans Conzelmann, *Acts of the Apostl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23,은 누가가 사도행전 2:42에서 일상의 식사를 묘사하면서 식사와 성찬 간에 구분을 짓지 않았다고 바르게 주장한다.

18) Darrell L. Bock, *Acts, BEC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 150-51,은 사도행전에서 ‘떡을 뺀’이 주의 만찬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함께 식사하는 것을 가리키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는 초기 교회에서는 주의 만찬이 식사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이라고 바르게 지적한다. 참고, I. H. Marshall, “Lord’s Supper,” *DPL*, 569-75,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먹는 식사와 그것을 기억하지

위더링턴(Ben Witherington III)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현존과 식사의 연결성을 강조한다고 보면서, ‘떡을 뺀’은 주의 만찬을 암시하는 초기적인 방법이지만 일반적인 식사를 제외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¹⁹⁾ 아마도 사도행전 2:42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즉,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쓴 것이다. 그 중에 포함된 떡을 떼는 시간은 공동식사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며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했을 것이다.²⁰⁾ 페터슨(D. G. Peterson)은 ‘the breaking of bread’는 떡을 손으로 떼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유대인들의 방식에서 보편적 식사의 시작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떡을 떼다’는 표현은 그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단지, 기독교인들의 식사가 특별한 성격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가르침과, 기도와, 친양과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식사를 하면서 사람과 예수께서 하신 일에 집중할 뿐 아니라 그들의 교제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함을 서로 상기시키게 된다고 본다.²¹⁾ 더 나아가서 윌리몬(William H. Willimon)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매일 식사에 참여하는 것은 누가복음 22:30(“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기록한 바와 같이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메시아의 향연에 참여할 것을 내다본다고 바르게 말한다.²²⁾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쳤을 것이고,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후에는 모든 교회가

않고 먹는 일반적인 식사 사이에 특별한 구별을 발견할 수 있는 역사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19) Ben Witherington III, *The Acts of the Apostles: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Carlisle: The Paternoster Press, 1998), 160-61.
 20) E. J. Schnabel, *Acts, 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12), 179.
 21) David G. Peterson, *The Acts of the Apostles*, (Grand Rapids: Eerdmans, 2009), 161.
 22) Willimon, *Acts*, 41.

주의 명령을 따라 지키도록 독려했을 것이다. 페터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의 만찬의 정식 명칭이 AD 2세기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면, 그 이전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공동식사를 하며 함께 떡을 떼는 중에 주의 죽으심을 기념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께서 명하신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3. 누가복음 22:19의 예수님의 명령: “...나를 기념하라!”

누가복음 22:14-23에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장면이 묘사된다. 이 장면은 이후에 ‘주의 만찬’으로 행해지는 것이 처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다. 즉, 식사와 주의 만찬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먼저 누가복음 22:14-23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piáo xω) 당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양(piáoχa)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한다(22:15). 여기서 누가는 언어유희를 통해서 유월절과 예수님의 죽음이 관련이 있음을 암시한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듯이 예수님 또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실 것이라는 말이다.²³⁾

23) 개역개정성경에서 ‘유월절’로 번역된 πάσχα는 (1) 절기로서의 유월절, (2) 유월절 어린양, 그리고 (3) 유월절 식사를 의미할 수 있기에 학자들 간에 논의가 많다. 그러나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앞서 22:7에서 같은 단어인 πάσχα를 사용하여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날이 이른지라”고 했기 때문에, 22:15에서도 ‘유월절 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그리고 유월절 양이 희생을 당하듯(Θύεοθαι) 예수님도 희생을 당하실 것이다. 참고. I. Howard Marshall, *The Gospel of Luke*, NIGTC (Exeter: The Paternoster Press, 1978), 795-96; John Nolland, *Luke 18:35-24:53*, WBC (Texas:

그리고 그 유월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22:16).²⁴⁾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께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22:16)고 말씀하신 이후에, 잔(cup)을 받아 감사기도를 했다는 사실이다(22:17). 그 후에 떡을 가져 감사기도를 한 후에(22:19), 다시 잔을 취하여 떡을 가졌을 때와 같이 하신다(22:20). 학자들 간에 22:17의 ‘잔’이 유월절 식사에서 통상적으로 있던 네 번의 잔 중에 몇 번째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지만,²⁵⁾ 누가가 그 잔의 순서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 잔의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일 것이다. 누가는 단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행하는 중 적당한 때에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에 떡과 잔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할 뿐이다. 그리고 식사는 계속 되었다.

개역개정성경에서 누가복음 22:20은 “저녁 먹은 후에”라는 표현 이후에 다시 “잔도 그와 같이 하여”라고 번역을 했다.²⁶⁾ 이와 같은 번역은 조금

Word Books, 1993), 1049-50. Cf. Darrell L. Bock, *Luke 9:51-24:53*, BECNT (Grand Rapids: Baker Books, 1996), 1720-21.

24) 예수께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22:16)고 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종말론적 항연을 내다보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다보는 것이다. 참고. Nolland, *Luke 18:35-24:53*, 1050-51; Bock, *Luke 9:51-24:53*, 1720-21.

25) 어떤 이들은 누가복음 22:17의 잔을 첫 번째 잔이라고 하고(Nolland, *Luke 18:35-24:53*, 1051; Bock, *Luke 9:51-24:53*, 1722), 또 다른 이는 두 번째 잔이라고 한다(Joel B. Green, *The Gospel of Luke*,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7], 761). 이를 단순히 네 번의 잔 중에 이른 것(one of the earlier cups)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Robert H. Stein, *Luke*, NAC [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1992], 542). 그리고 Marshall, *The Gospel of Luke*, 797-98,은 22:20의 ‘잔’이 22:17의 것과 같으면 세 번째 잔이고, 만약 다르면 22:17의 것이 첫 번째 잔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유월절 식사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Nolland, *Luke 18:35-24:53*, 1047-49를 보라.

26) 개역개정성경의 고린도전서 11:25에서도 같은 표현(μετὰ τὸ δειπνήσαι)이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식후에’로 번역되었다. 보편적으로 식후(食後)는 밥을 먹은 이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한자 그대로의 의미는 무엇이든지 ‘먹은 후’를 가리킬 수도 있다. 어쩌면 여기서도 ‘식사 후’라는 의미보다는 앞서 주어진 것을 ‘먹은 후’가 더 넣을 듯하다.

어색하다. 왜냐하면 앞서 22:19에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하고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한 후에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는데, 22:20에서 저녁 먹은 후에 다시 잔을 가져서 앞서 했던 것을 반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떡을 떼는 것과 잔을 나누는 것이 구분되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 식사와 주의 만찬이 구분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은 식사 중에 자연스럽게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저녁 먹은 후에’(μετὰ τὸ δειπνῆσαι)에 사용된 동사(δειπνέω)는 ‘식사를 하다’(dine)는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먹다’(eat)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이를 반영하듯 어떤 영어 번역본은 ‘after supper’로 번역하기도 하지만(KJV; NIV; NLT; NRSV), 또 다른 영어 번역본은 ‘after they had eaten’으로 번역하기도 한다(ESV; NASB; NET). 어쩌면 ‘저녁’을 먹은 후에 잔을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떡을 먹은 후에 잔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식사 중에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이라면 그 이후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와 같이 했을 가능성이 크다. 예수님은 떡과 잔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τοῦτο ποιεῖτε εἰς τὴν ἐμὴν ἀνάμνησιν)고 하신다(22:19). 여기서 중성 단수 대격 지시대명사(τοῦτο)는 앞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든 행위를 지칭할 것이다. 즉, 떡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한 후에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어지는 구절 22:20에서 “잔도 그와 같이 하여”(καὶ τὸ ποτήριον ὠσαύτως)라고 했기 때문에, 지시대명사 τοῦτο는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것 모두를 가리킬 것이다.²⁷⁾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를 ‘행하라’(ποιεῖτε)고 명령한다. 어떤 이들은 이 동사가 의식(rite)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용된 사실(출 29:35; 가 15:11-13; 신 29:9;

27) 참고. Stein, *Luke*, 543.

1 QS 2:19; 1 QSa 2:21)을 지적한다.²⁸⁾ ‘행하라’는 동사가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를 기념하라’는 표현 속에는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듯하다.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기억하라는 말이다. 문맥상으로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드리고(22:15, 19), 자신의 피를 부어 새 언약을 세운 것(22:20)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과 피 흘림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상기시킨다. 그린(Joel B. Green)은 “이와 같은 회상은 외부인(outsiders)에 대한 개방성, 종으로서의 처신, 명예로운 지위에 대한 무관심 등과 같은 예수님의 식사 예절을 연상시키는 반응을 불러 일으켜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그의 삶의 특징이 구현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바르게 말한다.²⁹⁾

예수께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한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일상적인 식사에서 행해졌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도행전 20:7에서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참고 행 20:11, 고전 16:2)라고 기록한다. 이는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이 교회의 예배 중에 행해졌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사도행전 2:42-46에는 성도들이 매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한다. 신약 성경에는 성도들이 얼마나 자주 모여서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주어지지 않았다.³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교제한 것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일상 속에서 매일 행해야 할 것으로 이해한 듯하다. 즉,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과 그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려 했다는

28) Stein, *Luke*, 543; Marshall, *The Gospel of Luke*, 804.

29) Green, *The Gospel of Luke*, 762,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식사는 그의 정의로운 생활방식, 그리고 아버지의 양식을 모두에게 공급하는 생활방식을 기념하고 연장시키는 것”이라고 바르게 말한다.

30) R. H. Setin, “Last Supper,” in *DIG*(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2), 449-50.

말이다. 고린도전서 11:25b의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τοῦτο ποιεῖτε, δόσακις ἐὰν πίνητε, εἰς τὴν ἐμὴν ἀνάμνησιν)라고 말한 것을 보면, 바울 또한 그렇게 이해한 듯하다. 이와 같이 공적으로 모여서 공동식사를 하든지, 가정에서 모여 식사를 하든지 초대교회 교인들은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1:17-34에는 식사와 주의 만찬을 함께 행함에 있어서 이를 남용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어쩌면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식사와 주의 만찬이 나누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고린도전서 11:17-34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4. 고린도전서 11:17-34: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1:17-34은 주의 만찬이 성도들의 식사 중에 함께 행해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들 중에 이를 남용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게 주의 만찬의 의미를 다시금 설명한다. 본 단락은 초대교회의 어느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식사와 주의 만찬이 분리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 주는 듯하다.³¹⁾

먼저 고린도전서 11:17-19에서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 사이에 분열(οξύ οργή)이 있음을 지적한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οἱ δόκιμοι)이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31) 지면 관계상 고린도전서 11:17-34 전체를 다를 수 없고,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다.

한다(11:19). 앞서 11:17에서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라고 했는데, 11:20에서 ‘ἐπὶ τὸ αὐτό’를 사용하여 그들이 모인 바로 그 곳에서 함께 ‘주의 만찬’을 먹으려 한다고 한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모여 ‘먹는 것’(φαγεῖν)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한다(οὐκ ἔστιν κυριακὸν δεῖπνον).³²⁾ 왜냐하면 주의 만찬을 위해 모인 자들이 먹을 때 각자 그들 스스로의 만찬을 먼저 먹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서 어떤 이는 굽주리고 또 다른 이는 술에 취하기 때문이다(11:21). 먼저 여기서 ‘그들 스스로의 만찬’(τὸ ὅδιον δεῖπνον)은 앞서 언급했던 ‘주의 만찬’(κυριακὸν δεῖπνον)과 대조를 이루는 듯하다. 주의 만찬을 위해 모인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먼저 먹음으로 자신의 만찬을 위해 모인 자들처럼 행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려는 학자적 견해가 많이 있지만,³³⁾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했듯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뿐 아니라 하나님의

32) ‘주의 만찬’(κυριακὸν δεῖπνον)에서 ‘κυριακός’는 ‘주께 속한’(belonging to the Lord) 또는 ‘주의 것’(the Lord's)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피(Gordon D. Fee)는 이를 ‘주께 바쳐진’(Consecrated to the Lord) 또는 ‘주님을 기념하여’(in honor of the Lord)를 의미한다고 본다(Gordon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87], 539-40). 개역개정성경은 “너희가...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나”라고 번역했지만, 오히려 “너희가...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낫다. 참고, Anthony C.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GTC (Carlisle: Paternoster Press, 2000), 862-63.

33)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이는 개인주의가 만연해서 주의 만찬을 다 함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자신의 개인 것만을 즐긴다는 것이다(Hans Conzelmann, *A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5), 194). 둘째, 부한 자들이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일찍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노예나 가난한 자유인)이 오기 전에 먼저 그들 자신의 호화로운 만찬을 먹는다는 것이다. 셋째, 부한 자들이 그들 개인의 만찬을 먹되 가지지 못한 자들 앞에서 그들과 나누지 않고 그들의 것을 먹는다는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540-41을 보라. Cf. David E. Garland, *1 Corinthians*, BEC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539-42.

말씀에 순종하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과 같은 외부인들(outsiders)을 동등하게 대할 뿐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확실히 치암파(Roy E. Ciampa)와 로스너(Brian S. Rosner)는 “고린도 사람들이 참여한 것은 주의 만찬으로 간주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의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들의 연합과 그 만찬을 주재한 주님은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고 보잘 것 없는 자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분으로 인식되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바르게 지적한다.³⁴⁾ 또한 가렌드(David E. Garland)는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자기의 음식을 ‘먼저 갖다 먹는 것’(προλαμβάνειν, 11:21)³⁵⁾과 예수님의 떡을 ‘뗀’(λαμβάνειν, 11:23)을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고린도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취했고 예수님은 타인들을 위해서 취했다. 고린도인들은 이기적으로(selfishly) 행했고 예수님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심이 없이(unselfishly) 행했다. 고린도인들의 행동은 그들을 정죄로 이끌지만 예수님의 행동은 타인을 구원으로 이끈다.”³⁶⁾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즐기려 했던 ‘그들의 만찬’은 그 결과에 있어서도 주의 만찬과 대조를 이루는 듯하다. 바울은 각자가 자기의 것을 취한 결과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고 말한다(11:21b). 바울이

34) Roy E. Ciampa and Brian S. Rosner, *The First Letter to the Corinthians*, PNTC (Nottingham: Apollos, 2010), 545-46,는 “참으로, 그들[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속한 주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치욕적인 죽음을 죽으셨다. 따라서 주의 만찬은 연합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명백히 그 특징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만찬은 이러한 가치 중에 어떠한 것도 반영하지 않으므로 주의 만찬으로 묘사될 수 없다”라고 추가적으로 언급한다.

35) Garland, *1 Corinthians*, 540-42,는 προλαμβάνειν의 전치사인 πρό는 시간적인 의미가 없고 단지 ‘먹다’(partake; consume)는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부한 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이 많기에 그들의 것을 먹고 취하고 가난한 자들은 가지고 온 것이 없기에 먹지못해 시장하게 된다.

36) Garland, *1 Corinthians*, 542.

지적하는 이 결과 역시 앞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주의 만찬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한 자들, 곧 자신의 음식을 많이 먹은 자들은 넘치도록 먹고 취한 상태이지만 가난한 자들, 곧 자신의 음식을 먹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기 때문이다.³⁷⁾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유익을 누려야 한다는 메시지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전달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³⁸⁾ 뿐만 아니라 바울은 부한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빙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한다(11:22).³⁹⁾ 고린도전서 11:26에서 밝히듯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의 만찬을 행함으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부한 자들은 주의 만찬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부함을 드러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굴욕감을 주며(humiliate)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한다.⁴⁰⁾ 11:22의 마지막 질문인 “내가 너희에게 부른 말을 하라 너희를 칭찬하라”를 보면, 부한 자들은 그들의 행위가 잘못 된 것인지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 오히려 칭찬을 바랬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행위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37) 부한 자들은 취하고 가난한 자들은 시장하다고 표현한 것은 주의 만찬의 두 요소인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행위의 양 극단을 묘사한 것으로, 어느 한 쪽이 지나치게 많이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불균형을 지적하려는 듯하다. 그리고 그 강조점은 가난한 자들이 굶주리고 부끄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543.

38) Garland, *1 Corinthians*, 542.

39) 11:22의 첫 번째 질문인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가 종이나 가난한 자들에게는 할 수 없는 질문으로 부한 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본다. 참고. Garland, *1 Corinthians*, 542; Ciampa and Rosner, *The First Letter to the Corinthians*, 546;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543,는 이 질문이 이어지는 문장에 나타난 ‘빙궁한 자들’과 대조를 이룬다고 본다.

40)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된 여러 지체에 대해서, 그리고 13장에서 성령의 은사(특히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교훈하고 있다.

가난한 자들을 육보에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그러한 자들은 칭찬을 받을 수 없다(11:22).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한 후(11:23-26),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한다. 즉, 그들의 행위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고(11:27)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다(11:29). 이는 앞서 11:20-22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을 다시 언급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의 만찬을 위해서 모였지만 그 만찬을 행하는 원래 의미와 취지(11:23-26)를 깨닫지 못하고 남용(abuse)하는 것을 말한다. 그와 같이 하는 자들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고⁴¹⁾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⁴²⁾ 따라서 이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주의 만찬에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자는 먼저 자기를 살펴야 한다(11:28).⁴³⁾ 바울은 다시 11:33-34에서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면서 앞서 제시했던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원한다.⁴⁴⁾

41)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다.

(1) 그리스도께 참예함으로 주의 몸과 피가 된 자들에게 죄를 짓는 것; (2) 주의 만찬이 상징하고 확증하는바 새 언약에 대해 죄를 지음으로 언약과 만찬을 설립하고 주재하시는 분께 죄를 짓는 것; (3)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그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등이다. 더 자세한 논의는 Ciampa and Rosner, *The First Letter to the Corinthians*, 554-55;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560-61을 보라.

42) 개역개정성경에서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11:29b)라고 번역되었지만, 이는 ‘죄’보다는 ‘심판’(κρίμα)이 나을 듯하다.

43) ‘살피다’(σοκυάζω)는 동사는 ‘시험하다’(test)는 의미로서 앞서 11:20-22에서 제시한 바와는 다르게 주의 만찬의 원래의 의미와 취지에 부합한지를 먼저 살피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참고.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561-62.

44) 흥미로운 사실은 앞서 계속해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지막 11:33에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1:17-34에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간에, 성도들이 함께 하는 식사와 주의 만찬이 함께 행해진 것은 분명한 듯하다.⁴⁵⁾ 그러나 그와 같이 행하던 중에 주의 만찬의 의미와 취지가 무엇인지 알지만 그대로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남용하는 자들이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성찬의 의미와 취지를 설명하면서 고린도교회 교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한다. 이와 같은 문제가 고린도교회에서 일어났다면, 또 다른 곳에서도 비일비재하기 일어났을 수 있다. 그래서 이후에 성도들이 함께하는 식사와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이 분리되어 행해졌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분리는 AD 2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확실해졌다고 한다.⁴⁶⁾ 또 다른 관점에서 역사학자인 곤잘레스(Justo L. Gonzalez)는 “처음에는 성찬이 식사의 일부였다. 신자들은 음식을 교회에 가져와 공동식사를 한 후에 빵과 포도주를 위한 특별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2세기 초에 공동식사는 폐지되었다. 이는 박해의 공포 때문에, ‘애찬’에 대한 소문을 없애기 위해서, 또는 단지 신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원래의 기쁨의 분위기는 계속되었다”고 기록한다.⁴⁷⁾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라고 묘사한 것이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성도들이 함께 먹는 것과 주의 만찬에 특별한 구별이 없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각주 2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1:25의 ‘식후’ 역시 식사 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은 후’를 가리킬 것이다.

45) 참고. I. H. Marshall, “Lord’s Supper,” DPL, 569-75,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먹는 식사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먹는 일반적인 식사 사이에 특별한 구별을 발견할 수 있는 역사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6) Setin, “Last Supper,” 449-50; Peterson, *The Acts of the Apostles*, 161.

47) Justo L Gonzalez, 『초대교회사』(*The Story of Christianity*, 엄성숙 역, 개정증보, 서울: 은성출판사, 2012[1974]), 164.

5. 나가면서(요약과 적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행전 2:42의 ‘떡을 땡’(τῇ κλάσει τοῦ ἄρτου)은 단순히 공동 식사를 가리키는 것도, 주의 만찬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공동식사 중에 함께 떡을 떼며 주의 죽으심을 기념했던 것을 가리킨다고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누가복음 22:19에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과 이를 행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서도 볼 수 있다(참고. 행 2:42-46; 20:7, 11; 고전 16:2). 그리고 바울도 자신이 예수께로부터 받은 주의 만찬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고전 11:25b)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의 만찬 시행이 늘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성도들 중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자들이 있었고(고전 11:27) 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자들도 있었기 때문이다(고전 11:29). 이와 같이 주의 만찬을 왜곡함으로 그것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고전 11:26).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준다. 첫째, 성찬은 특정일에만 행해지는 예식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한다. 성만찬과 식사가 엄격히 구분된 현대 기독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사도행전 2:42의 ‘떡을 땡’을 식사와 주의 만찬이 결합된 형태로 보는 것이 생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애초부터 주의 만찬은 현대의 교회에서 행하는 것과 같이 한 달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행하며 지키던 월중 행사나 연례행사는 아니었다. 어떤 이는 매월 성찬식을 하니(너무 자주 하나) 타성에 젖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같다는 발언을 한다. 이는 예수께서 성찬을 재정하신 이유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발언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매 순간 먹고 마실 때마다 자신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 둘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그의 삶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헌신, 그리고 인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 이를 통해 모든 이를 하나 되게 하심 등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실제 성찬식을 행할 때 나타나야 한다. 오늘날의 성찬식에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나타나고 있는지, 혹은 현대의 성찬식이 너무 배타적이지는 않은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논의는 성찬의 원래 의미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준다. 서론에서 최진봉 교수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는 신중한 논의 없이 행하는 온라인 성찬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코로나19라는 이례적 상황 하에서의 교회의 설부른 임기응변적 대응은 교회와 기독교 신앙, 예배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실천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배와 성찬과 같은 교회의 실천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고도 충분한 고민과 신학적 숙의를 통해 그 정신과 신학에 부합한 실천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⁴⁸⁾

본 글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교회에게 성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초대교회에서 식사와 함께 행했던 주의 만찬에 대해 살펴보면서 성찬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만족하려 한다. 이후에 성찬의 실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더 깊은 성경신학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48) 최진봉, “코로나 19 이후의 교회,” <https://cemk.org/16877/>.

참고문헌

- 최진봉, “코로나 19 이후의 교회,” 『좋은나무』 2020년 5월 20일. <https://oemk.org/16877/> 2020년 7월 14일 접속.
- Gonzalez, Justo L., 『초대교회사』(The Story of Christianity, 엄성옥 역, 개정증보, 서울: 은성출판사, 2012[1974]).
- Barnes, Albert, et. al., *Acts, Notes on the New Testament* (18th prin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0[1949]).
- Barrett, C. K., *Acts,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Vol. 1* (Edinburgh: T&T Clark, 1994).
- Bock, Darrell L., *Acts*, BEC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
- Bock, Darrell L., *Luke 9:51-24:53*, BECNT (Grand Rapids: Baker Books, 1996).
- Bruce, F. F., *The Book of the Act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88).
- Ciampa, Roy E. and Rosner, Brian S., *The First Letter to the Corinthians*, PNTC (Nottingham: Apollos, 2010).
- Conzelmann, H., *Acts of the apostles: A Commentary on the Acts of the Apostles*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1987).
- Conzelmann, Hans., *A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5).
- Fee, Gordon D.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87).
- Fitzmyer, J. A., *The Acts of the Apostles* (New York: Doubleday, 1998).
- Garland, David E., *1 Corinthians*, BEC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 Green, Joel B., *The Gospel of Luke*,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7).
- Haenchen, Ernst. *The Acts of the Apostles: A Commentary* (trans. Bernard Noble and Gerald Shinn, Oxford: Basil Blackwell, 1971[1965]).

- Jeremias, Joachim, *The Eucharistic Words of Jesus* (London: SCM Press, 1966).
- Larkin Jr. William J., *Acts*, IVPNTC 5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5).
- Marshall, I. H., “Lord’s Supper,” DPL, 569-75.
- Marshall, I. Howard, *The Gospel of Luke*, NIGTC (Exeter: The Paternoster Press, 1978).
- Neil, William, *The Acts of the Apostles* (Grand Rapids: Eerdmans, 1981).
- Nolland, John., *Luke 18:35-24:53*, WBC (Texas: Word Books, 1993).
- Peterson, D. G., *The Acts of the Apostles* (Grand Rapids: Nottingham: Apollos, 2009).
- Peterson, David G., *The Acts of the Apostles*, (Grand Rapids: Eerdmans, 2009).
- Polhill, John B., *Acts: The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1992).
- Schnabel, E. J., *Acts*,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12).
- Setin, R. H., “Last Supper,” DJG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2).
- Stein, Robert H., *Luke*, NAC (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1992).
- Thiselton, Anthony C.,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GTC (Carlisle: Paternoster Press, 2000).
- Williams, David John., *Acts*, NIBC (Peabody, Mass.: Hendrickson Publishers, 1990).
- Willimon, William H., *Act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Atlanta: John Knox Press, 1988).
- Withington III, Ben, *The Acts of the Apostles: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Carlisle: The Paternoster Press, 1998).